



더연합타임즈 모바일 보기



www.medisongroup.co.kr

고객을 향한 단 하나의 진심!

**BNK 부산은행**

제1401호 (2023년 12월 4일 월요일)

대표전화 : 1533-1545

## 황운하, 1심 실형에 “면류관 쓰고 십자가 메고”

### 黃, 자신을 예수에 비유하며 “살아남겠다”…與 “성인 희생 코스프레 파렴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자신의 처지를 예수에 비유해 논란이 일고 있다.

황 의원은 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사의 나라에서 검찰 권력과 맞서 싸우는 길을 선택한다는 건 건지기 어려운 혹독한 고난의 길임을 각오해야 한다”면서 “가시면류관을 쓰고 채찍을 맞아가며 십자가를 메고 가시밭길을 걷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그들의 뜻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다. 반드시 살아남겠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이른바 ‘하명 수사’에 나선 혐의를 기소돼 지난달 29일 1심에서 3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황 의원의 주장에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송철호-황운하 각 징역 3년(CG)

대해 “파렴치의 끝”, “신성 모독” 등의 표현을 써 비난했다.

정광재 대변인은 3일 논평에서 “울산시장 선거공작 사건으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황 의원이 자신을 예수에 비유하는 파렴치의 끝을 보여줬다”며 “범죄자가 성인(聖人)의 희생을 코스프레하

고 자체가 신성 모독”이라고 주장했다.

정 대변인은 “살아서 돌아오고 말고는 황 의원 본인이 아니라 법의 심판과 국민의 판단에 달렸다”며 “불법적으로 선거에 개입해 헌법을 유린한 대가로 얻어낸 국회의원 배지, 부끄러워치 않은가”라고 꼬집었다.

/ 송원기 기자



## 공공기관 종사자 72% “직장 내 괴롭힘당해도 참는다”

### “공무원에도 근로기준법 관련 조항 적용해야”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10명 중 7명 이상 꼴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도 참는다는 시민단체 설문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감질119는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을 설문한 결과 공공기관 종사자 중 31.6%가 괴롭힘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고 3일 밝혔다. 특히 이 중 72.7%는 대응 방식으로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를 택했다고 전했다.

이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때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는 민간기업 종사자 응답률(51.0%)을 훨씬 웃도는 수치다.

단체는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직장 내 괴롭힘을 묵인하는 배경에는 정부가 ‘공무원에게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유지하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이러한 정부의 해석은 ‘특별히 정한 규정이 없는 경우 공무원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례와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인용해 2018년부터 올 6월까지 공무원 자살 순직 청구 건수는 107건에 달한다고 밝히며 “정부가 공공기관 내 직장 내 괴롭힘 사각지

대를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직장감질119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21년 대전시청 공무원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뒤 사회적 공분이 일자 공무원 징계령을 개정해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처벌조항을 신설했다.

그러나 여전히 괴롭힘 가해자가 사용자 또는 사용자 친인척인 경우나 신고 사건에 대한 조치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처벌하는 조항 등이 공무원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단체는 또 공공기관의 경우 공무원, 공무직, 용역업체 또는 위탁기관 소속 노동자 등 다양한 고용 형태를 가진 이들이 함께 일하는 경우가 많아 괴롭힘 사건 법 적용에 있어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민주 직장감질119 노무사는 “위계질서가 강한 공공기관 노동자들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고 소속이 다른 노동자 간 발생하는 괴롭힘 사건 처리 과정의 혼란을 최소화하려면 공무원에게도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장감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공공기관 종사자들을 위해 ‘공무원 직장감질 50문 50답’ 보고서를 제작해 단체 홈페이지 또는 블로그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 김은성 기자

## 尹, 이르면 내일 개각...총선 출마자 빼고 관료·전문가 기용 최소 7곳 장관 교체...내각 안정시키고 정부 3대 개혁 속도 내기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4일 중폭 이상 개각을 단행한다. 개각 명단은 비정기권 인사들 위주로 꾸려질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정치인 출신들이 내년 4월 총선 출마를 이유로 대거 후보군에서 빠지면서 자연스럽게 관료·학계·전문가 출신 인사들이 내각을 채우게 되는 것이다.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나 이동권 전 방 송통신위원장 사퇴 등으로 어수선했던 내각을 안정시키고, 나아가 현 정부의 핵심 과제인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을 포함한 국정 과제에도 속도를 내야 하는 점도 함께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각 대상으로는 기획재정부, 국

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등이 유력하다.

산업통상자원부도 방문규 장관이 출마할 경우 개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방 장관은 여권 인사들로부터 고향인 수원 지역구 출마를 강력 권유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장관에 취임한 지 3개월여밖에 안 된 점이 부담으로 작용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임에는 정통 경제 관료 출신인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뒤를 이어서는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유력한 가운데 심교인 국토연구원장도 여전히 물망에 있는 상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후임으로는 송상근 전 해수부 차관과 선장 출신 교수로 유명한 김인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거론된다.

정황근 농림부 장관과 방문규 산업부 장관 후임에는 각각 여성인 송미령 한국 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우태희 전 산업부 2차관이 거론된다.

최근 총선 출마를 확정 지은 이영 중기부 장관 후임으로는 유병준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와 더불어 민병주 한국산업기술

진흥원장이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

노동부 장관에는 노동경제학을 연구해 온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과기부 장관에는 이용훈 울산과학기술원 총장과 유지상 광운대 총장 등이 거론된다.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와 맞물려 이번 유치전을 주도해온 박진 외교부 장관도 개각 대상에 포함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총선 출마가 유력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후임 인선 작업도 진행 중이다. 다만, 연말·연초에 ‘원포인트’로 인선을 단행하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강력·특수통 검사 출신인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을 비롯해 김태기·박성재 전 서울고검장이 검증 대상에 포함됐다.

윤 대통령도 주말인 이날 공식 일정을 비워둔 채 막판 고심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 이정민 기자

동해·매력 특별시서울

SEOUL MYSOUL  
마음이 모이면 서울이 됩니다

좋은 집으로 가는 길

유연한 도시계획

신속한 계획결정

혁신적인 디자인

## 신속통합기획

서울형 정비지원계획

신속통합기획은,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서울시가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공공지원계획입니다

서울특별시

# 당정대 '행정전산망 먹통' 재발방지책 논의...“민관 협업해야”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협의회를 열어 '정부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민간기업의 앞서가는 기술과 관리 역량을 적극 흡수해야 한다"며 "잘하는 기업과 협업하는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전산망 마비는 민관 협업의

부재, 정부의 폐쇄적 사업발주에서 비롯된 결과일 수 있다"며 "종합컨트롤 역할과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플랜B'와 비상 대비훈련 계획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전자정부 출범 이래 누적된 것이기는 하지만 이를 개선해야 할 책임은 우리 정부에 있다"며 "디지털 정부를 향상하는 데 필요한 전자정부법, 공공데이터법, 데이터 기

반 행정법 등의 개정과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 관리 예산 증액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모든 것이 과거 전산망에 제대로 투자하지 않은 데에 기인한다"며 "지금부터라도 과감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재정 소요 계속 필요한 부분은 속히 계획을 확정해서 정기 국회 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다음 달 27일부터 업종과 무관하게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전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유예 연장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경영진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가는 현행제도는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본질과도 거리가 있을 수 있다"며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까지 법 적용이 확대되기에 무리가 크다는 현장 목소리가 높다. 유예기간을 더 주면서 지원을 강화하는 등 '투트랙'으로 해야겠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제정 당시부터 규정의 모호함과 과잉 처벌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며 "당에서는 50인 미만 기업에 대해 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개정안을 발의했고,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내년 늘봄학교 전국 시행 계획과 관련해 "교육 현장 인력이 추가 부담을 지는 일이 없도록 기존 업무와 늘봄학교 업무를 분리·운영하고, 교육청 등의 상호 지원을 확대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 김 대표, 윤 원내대표, 이만희 사무총장, 유의동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김 비서실장, 이관섭 정책실장과 새로 임명된 한오섭 정부·이도운 홍보·박춘섭 경제·장상삼 사회 수석이 참석했다. '용산 2기 참모진' 출범 후 당정대간 첫 공식 상건례가 이뤄졌다.

김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새로 소임 맡은 분들에게 축하 인사드리고 제2기 팀이 더 큰 활약을 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축하를 전했다.

/ 송원기 기자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열린 2024학년도 수시모집 눈술고사를 마친 수험생들이 캠퍼스를 나서고 있다.

## 서울권 대학 수시 탈락생 증가할 듯 "자연계 정시 치열 전망"

서울 소재 대학의 2024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탈락자 규모가 자연 계열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서울 소재 상위권 대학의 정시 경쟁률이 치열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3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4학년도 서울권 소재 대학의 수시 탈락생 규모는 67만5천822명으로 예상된다.

1년 전인 2023학년도 수시 당시(62만5천479명)보다 탈락자가 5만343명 늘어나는 것으로, 통합 수능이 도입된 2022학년도 이후 최대 규모일 것으로 전망된다.

계열별로는 자연 계열 탈락자가 35만8천366명(53.0%), 인문계열 탈락자가 31만7천456명(47.0%)으로 예상된다.

특히 증가한 탈락자 수를 보면, 자연 계열이 4만2천133명으로 대다수인 83.7%

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인문계열은 8천210명(16.3%)이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이른바 'SKY'대의 수시 탈락생 규모는 1년 전보다 7천402명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자연 계열 탈락생 증가 규모는 5천759명(77.8%)으로, 인문계열(1천643명·22.2%)보다 많은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소재 대학 수시 탈락자 수가 증가하면서 정시 모집에선 자연 계열을 중심으로 경쟁률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수시 탈락 규모 증가가 자연 계열에 집중된 상황이라서 서울 소재 대학의 자연 계열 정시 경쟁률이 지난해보다 상당히 오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종로학원은 진단했다. / 오영철 기자

## 카드사용 증가분 한시 특별공제...월세 세액공제 750만→1천만원

### 민생안정 稅지원, 기재위서 신설...임시소비세액공제 野요구에 '소득공제' 절충

내수 소비를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도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확대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1년 한시' 임시 소비세액공제를 소득공제 방식으로 절충하는 식으로 반영한 것이다. 월세 세액공제 한도·소득기준, 둘째 자녀에 대한 자녀세액 공제도 각각 확대된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법심사 과정에서 이런 세법개정 조항들이 신설·의결됐다. 지난 7월 말 정부가 발표한 '2023년도 세법개정안'에는 담기지 않았던 내용이다.

우선 내년도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의 105%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10%에 대해 추가로 소득공제(100만원 한도)가 적용된다. 가령, 카드사용액이 올해 2천만원에서 내년 3천100만원으로 늘어난다면 105% 초과분인 1천100원[3,100-

(2,000\*105%)]을 기준으로 100만원을 추가 공제하는 방식이다.

소득세 과세표준 8천800만원을 웃도는 근로자는 35만원(35%), 과표 5천500만원인 근로자는 24만원(24%)의 세 부담이 줄어든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도 '소비 리바운드'를 위한 신용카드 소비증가분의 소득공제 조치를 재도입하는 것이다.

야당 요구의 취지를 일정 부분 살린 것이기도 하다. 앞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초 기자회견에서 "가계의 소비 여력을 확대해 내수를 살려야 한다. 1년 한시로 임시 소비세액공제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세입자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 한도와 소득기준도 상향된다. 소득기준은 현행 총급여 7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한도액은 현행 연간 월세액 75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각각 높아진다. 소득기준 상향조정으로 약 3만명, 한도 확대로 약 1만4천명의 세입자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게 정부 분석이다. 출산 장려를 위한 조치도 국회 단계에서 추가됐다.

약 220만 가구에 해당하는 둘째자녀 세액공제액은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난다. 자녀별로 첫째·둘째·셋째 이상 세액공제액이 현행 15만·15만·30만원에서 15만·20만·30만원으로 바뀌는 것이다.

조손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기본공제 대상도 자녀에서 손자녀로 넓어지게 됐다. 약 13만3천 조손 가구가 가구당 15만원 이상 감세효과를 볼 것으로 정부는 추정했다. 그밖에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새



마을금고 등 조합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가 상향(출자금 1천만→2천만원)된다.

양식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소득금액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높아진다. 상향분 2천만원에 15% 세율을 적용하면 양식업 가구당 연간 300만원(2,000\*15%)의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추정했다. 모두 기획재정부 심사 단계에서 신설된 조항들이다.

혼인·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기업승계 세 부담 완화조치 등은 수정 의결됐다. 이들 조치는 내년도 예산안의 예산부수법안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 신민경 기자

## '위안부 매춘' 발언 교수 경징계 제청에 경희대 동문회 반발

경희대 철학과 동문회가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이라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최정식 교수에 대해 학교가 경징계를 제청한 사실이 알려지자 "실망스럽고 비겁한 결정"이라며 반발했다.

동문회는 최 교수에 대한 경징계 제청을 철회하고 중징계를 내려달라는 입장문을 학교에 보냈다고 3일 밝혔다.

경희대 교원인사위원회는 지난달 학교법인 경희학원에 최 교수에게 '견책' 수준의 경징계를 내려달라고 제청했다. 견책은 파면, 해임, 정직, 감봉에 이은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로 훈계 조치에 그친다.

동문회는 입장문을 통해 "민중 정서와 현행법을 거스르는 망언 사태에 대해 학교 당국은 가장 가벼운 징계 처분을 내렸다"며 "이제 교수들은 아무 망언이나 내뱉어도 시달서 한 장 쓰면 끝이라는 선례를 경희대가 남겼다"고 비판했다.

이어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2019년 '위안부 매춘' 발언으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류 교수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찾아뵙고 정식 사과까지 하고도 징계 처분을 받았지만 최 교수는 단 한 번도 사과의 뜻을 표명한 적 없다"라고 지적했다. / 광경수 기자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하는 국민연금 모바일 앱!

# 내곁에 국민연금

예상연금 조회

가입내역 조회

연금 청구

증명서 발급

예상연금액 및 가입내역 조회, 연금 청구, 전자증명서 발급 등 국민연금의 다양한 서비스를 모바일 앱으로 간편하게 이용하세요.

앱 설치 바로가기

# 한동훈, 순직장병 유족에게 답장 “덕분에 오늘의 우리가 있다”

## ‘이중배상금지’로 피해 본 유족에 ‘국가배상법’ 개정 약속



국가배상법 및 시행령 개정 추진 관련 브리핑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순편지로 순직장병의 유족을 위로하면서 ‘이중배상금지’ 조항을 담은 국가배상법 개정을 약속했다.

3일 법무부와 1997년 2월 육군 북부중순진 조 모 상병의 동생에 따르면 한 장관은 “형님 같은 분들 덕분에 오늘의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국가배상법(개정안)을 냈고, 반드시 통과되게 할 겁니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직접 써서 최근 조 상병 가족에게 보냈다. 한 장관은 “이 길 반대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한동훈 올림”이라고 편지를 맺었다.

이 편지는 가혹행위로 세상을 등진 조 상병의 가족이 도움을 요청하며 한 장관에게 보낸 편지에 대한 답장이다.

육군 제6보병사단 소속이던 조 상병은 선임병 8명에 대한 원망과 그들을 죽여달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채 숨졌다.

당시 가해자로 지목된 병사들은 구속 수사까지 받고도 전원 기소유예됐고, 군당국은 기소유예 처분을 유족에게 알리지조차 않았다. 수사 결과를 알지 못했던 유족은 재정신청 등으로 재수사를 요구할 기회를 원천 차단당했으며 그 사이 육군은 과거 수사 자료를 폐기해버렸다.

조 상병은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조사를 거쳐 지난해 4월 순직으로 인정받았다. 사망 25년 만이었다. 위원회는 선임병들의 극심한 구타·가혹행위와 부대 간 부들의 지휘·감독 소홀이 사망 원인이 됐다고 인정했다.

순직 인정으로 명예 회복은 일부나마 이뤄졌지만, 아직 실질적 보상에는 이르지 못했다. 조 상병 유족의 국가배상 신청을 육군과 국방부가 잇따라 ‘기각’한 것이다. 군은 ‘장병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

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조항, 즉 ‘이중배상금지 조항’을 기각 이유로 들었다.

유족이 국가보훈처 등으로부터 조 상병의 순직에 대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이중으로 배상할 수 없다는 것인데, 국가 경제력이 허약하던 월남전을 계기로 만들어진 이 조항은 유족의 권리를 제한하는 ‘독소조항’으로 꼽힌다.

이에 한 장관은 지난 5월 국가배상법

및 시행령 개정안 브리핑을 열어 유족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게끔 추진하겠다고 직접 밝힌 바 있다.

이를 골자로 한 국가배상법 개정안이 지난 10월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개정안은 특히 시행일 기준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에도 적용될 수 있어 국회를 통과한다면 군의 기각 결정 후 현재 유족이 소송을 진행 중인 조 상병 사건에도 적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 서동준 기자

### 文 ‘이성운 에세이’ 소개 與 “말장난 말고 울산사건 사죄하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친문(친문재인) 검사’ 이성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쓴 책을 추천하자, 국민의힘은 2일 “울산시장 선거공작 사죄부터 하라”고 비난했다.

문 전 대통령은 전날 페이스북에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 서울고검장 등 요직을 지냈지만, 지금 검사들의 세상에서 고초를 겪고 있는 검사 이성운의 야생화 이야기”라며 이 연구위원의 에세이 “꽃은 무죄다”를 소개했다. 문 전 대통령은 “저자는 야생화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며 “얼음을 뚫고 나오는 복수초(福壽草)의 강인함에서 절제와 인

내를 배우고, 우리 사회의 진정한 복수(福壽·오래 살며 복을 누림)를 꿈꾼다”고 적었다.

이에 국민의힘 신주호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문 전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책을 추천하며 ‘복수’라는 말장난을 할 게 아니라, 정권 차원의 민주주의 파괴 시도에 대한 국민적 물음에 응답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 부대변인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1심 유죄 판결을 언급하며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법원의 선고에 대해 국민께 사죄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 노승만 기자



SRT수서역에서 진행된 GTX-A '수서~동탄' 구간 시운전 행사에서 열차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다.

## 개통 향한 마지막 단계 GTX-A 수서~동탄, 종합시험운행 착수

시설 상태·종사자 업무 숙달 점검 거쳐 내년 3월말 개통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수서~동탄 구간이 개통을 위한 마지막 절차를 앞두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4일 종합시험운행 착수회의를 개최해 내년 3월 GTX-A 수서~동탄 구간 개통을 위한 막바지 작업에 돌입한다고 3일 밝혔다.

종합시험운행은 새로 건설한 철도 노선의 시설 상태 및 열차 운행 체계를 점검하고 종사자들의 업무 숙달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현재 열차 운행과 관련된 주요 공사는 모두 마친 상태이며, 수서역 등 역사와 환기구 일부 시설물에 대한 실내 마감 등 막바지 공사가 진행 중이다.

종합시험운행은 시험열차 투입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사전점검, 시험열차를

투입해 최고 속도까지 단계적으로 운행하는 시설물 검증시험, 실제 영업 상황을 가정한 운행하는 영업시운전 등으로 구성됐다.

국토부는 이달 중으로 사전점검을 완료하고, 내달 시설물 검증시험, 내년 2~3월 영업시운전을 거쳐 내년 3월 말에 개통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지난달 유관기관이 참여한 예비점검을 통해 도출된 내용을 반영해 열차 운행 체계를 최종 보완한다.

국토부는 최초로 도입되는 GTX 노선인 만큼 유관기관과 전문가를 참여시킨 가운데 철저히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종합시험운행은 GTX 개통의 마지막 관문으로 안전을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인 만큼 철저히 시행해 적기 개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강규성 기자

**에너지 나눔으로 세상을 더 따뜻하게**

GS칼텍스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난방유 지원에서부터 단열, 창호, 고효율 보일러 등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까지 섬 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따뜻한 온기로 가득 채우는 일, GS칼텍스가 늘 함께하겠습니다.

I am your Energy  
GS칼텍스

## 고향사랑기부금 지역 편차 더 벌어져...경북 39억·세종 7천만원



서울 한 대형마트에서 홍보 중인 의성진쌀

자신이 떠나온 고향 등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 공제 혜택과 지역 특산품 등을 주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지 1년을 앞둔 가운데 이 제도의 지역 간 모금액 편차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쓰게 된다.

반면에 세종은 7천683만원에 그치며, 전국에서 가장 낮은 모금 액수를 기록했다. 지난 3월(2천641만원)보다 약 5천만원 늘었다.

경북의 기부금이 세종의 51.1배나 됐

북 고창군(3억6천289만원), 경북 안동시(3억2천608만원)에서 모금액이 특히 높았다.

행안부 관계자는 “의성군 출신 출향인들이 의기투합해 기부에 나서는 사례가 늘고, 지역 특산품인 ‘의성진(眞)쌀’을 담

### 처음 기부액 공개된 서울...은평 1억6천만원, 도봉 436만원 양경숙 “모금 활동 제약 풀고, 적극적으로 홍보 나서야”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도가 시행된 1월부터 10월까지 경북은 39억2천438만원을 모금했다.

지난 3월(21억969만원)보다 18억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전국에서 모금액이 확인된 지역 중 가장 컸다. 집계에서는 인천과 일부 시군구 지역 지역은 빠졌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 1인당 연간 500만원 이하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담례품을 받는 제도다.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 활성화에

다. 지난 3월만 하더라도 두 지역의 격차는 20여억원이었으나 10월 기준 38억여 원으로 더 벌어졌다. 기부 건수 역시 경북은 1만2천387건에서 2만6천165건으로 1만 건 넘게 증가했으나, 세종은 248건에서 816건으로 느는 데 그쳤다.

이는 수도권을 제외하면 가장 많은 인구가 몰린 지역이 경성권이고, 이곳을 고향으로 둔 타지 생활인구가 갈수록 늘기 때문이라고 양 의원은 해석했다.

경남에서 모인 기부금도 경북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35억3천717만원이었다.

관련 자료를 공개한 지역을 세부적으로 보면 경북 의성군(3억8천660만원), 전

례품으로 내세워 인기몰이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같은 서울에서도 자치구별 모금액 편차는 컸다. 25개 자치구 가운데 은평구가 1억6천87만원으로 가장 많은 반면, 도봉구는 436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은평구가 도봉구의 36.9배나 됐다.

1~10월 서울시 모은 기부금은 5억6천여만원으로 인천을 제외한 16개 시도 가운데 9번째로 많다.

양 의원은 “제도 정착을 위해 모금 활동을 제약하는 요인은 없었는지 살펴보고, 지자체의 적극적인 홍보를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황수진 기자

# 김기현 “野 ‘묻지마 탄핵·막가파식 특검’ 폭주로 국회 마비”

## “부산 발전 사업 차질 없이 추진…정부도 적극 나서달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3일 “민주당의 습관성 묻지마 탄핵과 막가파식 특검 폭주로 국회의 정상 기능이 마비되고 국정 운영 발목잡기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삼정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당·정·대 고위협의회에서 “국회는 이성하고 상식이 실종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민주당에 의해 폭주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결국 예산안은 법정 처리 시한을 넘겼고 처리 못 한 민생 법안도 계속 쌓여만 간다”며 “민주당은 아직도 대선 결과를 부정하며 사사건건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고 국회 입법권을 오남용해 입법적 폭력이 남발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김 대표는 또 “민주당은 당 대표 사법



김기현 대표,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발언

리스크에 휩싸여 건전하고 상식적인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거꾸로 판사·검사를 겁박하고 언론을 야당 편에 묶기 위해 내년 총선까지 더욱 난폭한 정쟁을 유발할 것으로 예견돼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

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정은 더욱 긴밀한 소통과 팀워크를 강화해 민생 쟁거리에 더욱 매진해나갈 것”이라며 “특히 인사 교체기인 만큼 더욱 막중한 책임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에 대해 “참으로 안타깝고 애석한 일”이라며 “가덕도 신공항, 북항 개발, 산업은행 본사 부산 유치 등 부산 발전을 위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정부도 이런 프로젝트에 적극 나서달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메가시티’ 구상과 관련, “김포의 서울 편입을 비롯해 구리 등 서울 접경 도시들의 서울 편입 문제에 대해 주민 의사를 적극 반영해 주민 편익을 극대화하는데 더욱 박차를 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동시에 비수도권 지역 발전을 위해 주민 의사를 기초로 한 메가시티 청사진도 추진 중”이라며 “메가시티를 통한 국토 균형발전과 글로벌 도시경쟁력 강화에 당정이 더욱 긴밀하게 협연해나갔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 송유영 기자



서부전선 방공진지 점검하는 김명수 합참의장

## 합참의장 “적 도발시 압도적 응징” 서부방공진지·중부GP 점검

김명수 합참의장은 지난 2일 수도권 영공을 방어하는 서부전선 접적지역의 방공진지를 찾아 방공작전태세를 점검했다. 김 의장은 적 소형무인기 대응체계와 방공레이더, 방공무기의 장비 가동상태, 작전 수행 절차를 점검했다고 3일 합참이 밝혔다.

그는 장병들에게 “적 무인기 도발 위협이 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현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설정 효력정지를 빌미로 적 공중도발 시 즉각 응징할 수 있는 방공작전태세를 상시 유지하라”며 적 도발 시 현장 지휘관에 의한 ‘선조치 후보고’를 주문했다.

김 의장은 이어 대표병참지리레이더 진지를 방문해 적 포격 도발에 대비한 탐지 시스템을 점검하고 “적은 예상을 뛰어넘어 기습적으로 도발할 것”이라며 “적 포격도발 시 이곳에서 모든 작전이 시작된다”는 생각으로 대비 태세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김 의장은 중부전선 최전방 감시초소(GP)와 일반초소(GOP)를 찾아 야간까지 경계작전 태세를 살폈다.

그는 현장 지휘관으로부터 최근 GP 일대의 적 활동을 보고받은 뒤 추진 철책 주변을 직접 걸어보며 확인하고 감시·타격 장비를 점검했다.

김 의장은 “적과 싸워 이기기 위해 ‘원탐’이 되어 실전적 훈련에 몰입하고, 적이 도발한다면 최단 시간 내 현장에서 상황을 종결할 것”을 강조했다.

GOP 대대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철저하게 적의 관점에서 도발 유형과 방식을 엄중하고 적이 도발하면 현장에서 압도적 능력으로 철저히 응징하라”고 말했다.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달 24일부터 9·19 군사합의로 파괴하거나 철수한 11개 GP에 병력을 투입해 감시소를 설치하고 진지를 구축했으며, 무반동중 등 중화기를 반입했다. / 박정용 기자

## 공군 폭발물탐지전 ‘딘딘’ ‘뱅크’, 마약전문교육 받고 부대 배치

공군이 전군 최초로 마약탐지전을 양성해 일선 부대에 배치했다. 공군에 따르면 그동안 폭발물탐지전으로 활약하던 공군 제20전투비행단의 군견 ‘딘딘’과 교육사령부의 ‘뱅크’가 지난 10월 경찰청 경찰인재개발원 경찰견종합훈련센터에서 마약탐지전 전문 교육과정을 수료했다.

이들의 훈련을 담당하는 군견운용요원(핸들러) 2명도 함께 이 과정을 이수했다

며, 올해 4세인 레브라도 레트리버 딘딘과 1세인 셰퍼드 뱅크는 소속 부대에 배치됐다. 딘딘과 뱅크는 부대 군사경찰대에 대기하다가 필요시 귀영자나 기지반입 우편물 등에서 마약을 탐지하는 임무를 하게 된다.

훈련된 마약탐지전은 인지, 통보, 수색 훈련, 실내·외 탐지훈련 등의 과목을 이수해 깊이 숨겨진 대마초나 코카인 등 마

약류를 찾아낼 수 있다. 딘딘의 핸들러인 김성원 중사는 “딘딘은 학습속도가 빠르고 책임감이 강해 어떤 임무든 착실하게 수행한다”며 “딘딘을 최고의 마약탐지 군견으로 키우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공군이 전군 최초로 마약탐지전을 양성해 일선 부대에 배치했다. 3일 공군에 따르면 그동안 폭발물탐지전으로 활약하던 공군 제20전투비행단의 군견 ‘딘딘’과 교육사령부의 ‘뱅크’가 지난 10월 경찰청 경찰인재개발원 경찰견종합훈련센터에서 마약탐지전 전문 교육과정을 수료했다.

이들의 훈련을 담당하는 군견운용요원(핸들러) 2명도 함께 이 과정을 이수했으며, 올해 4세인 레브라도 레트리버 딘딘과 1세인 셰퍼드 뱅크는 소속 부대에 배치됐다. 딘딘과 뱅크는 부대 군사경찰대에 대기하다가 필요시 귀영자나 기지반입 우편물 등에서 마약을 탐지하는 임무를 하게 된다.

훈련된 마약탐지전은 인지, 통보, 수색 훈련, 실내·외 탐지훈련 등의 과목을 이수해 깊이 숨겨진 대마초나 코카인 등 마약류를 찾아낼 수 있다.

/ 이경호 기자

## 검찰 소환 앞둔 송영길 “구속영장 청구 기각 시킬 자신 있다”



송영길 전 대표, 대구서 북콘서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는 2일 “드디어 검찰에 출두하게 됐다”며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저는 기각시킬 자신이 있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오전 대구 수성구 만촌동 인터볼호텔에서 열린 북콘서트 ‘송영길의 선전포고’에서 “(검찰이) 무혐의 처

분을 할 일은 없을 거고, 뭐라도 나를 옹호해 구속시키려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그는 오는 8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앞두고 있다.

그는 “저는 위성 정당을 만들려고 고의로 탈당한 것이 아니다”라며 “원내 교섭단체 구성요건인 20석 이상인 ‘윤석열 퇴진당’을 만들면 탄핵 소추를 비롯해, 민주당을 견인해 서로 간 시너지 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준석, 이언주를 다 만나봤더니 그들도 더 이상 윤석열과 함께 할 수 없다고 했다”며 “이들이 신당을 만들어 싸우면 김건희 특검 통과를 시점으로 연대해 총력 투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정치한다고 막 떠들고 있는데, 한 장관이 김건희 특검에 대한 찬반 의사를 밝히는 순간 그의 실체가 드러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박현욱 기자

## 용혜인 “현재로서는 특정지역구 출마 준비 안해…진보진영과 연대” 광주 찾아 의정보고 “1월초 연합 구체화…민주당과도 연대 가능”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는 2일 “지금로서는 특정한 지역구 출마를 준비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용 대표는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국 첫 의정보고회에서 내년 총선에서 광주 출마 가능성에 대해 이같이 언급한 뒤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의 퇴행을 심판하고 민주 진보 진영의 승리 기반을 만든 다음 출마를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려 한다”고 밝혔다.

그는 “사실 호남과 수도권 한 곳씩 고민하며 갈래를 잡았고 자신도 있었다”며 “그러나 지금은 민주 진보 진영이 승리할 수 있는 개혁 구도를 그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제3차대 개혁연합신당 범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과 보수 계열 신당을 제외하고 녹색 전환·혁신 성장·국민통합에 동의하는 세력 모두에게 열려 있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용 대표는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과는 같은 세계관을 공유하지 않고 당연히 정치도 함께할 수 없다”며 “선거공학적이거나 보수 세력 확장으로 귀결되는 세력과는 연대하지 않겠다”고 일축했다.



의정보고하는 용혜인 대표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두고는 “민주당도 연대가 가능한 대상”이라며 “개혁 원칙과 방향에 동의하는지, 연대할 것인지 민주당 내부 판단이 우선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2월 말에서 1월 초 정도 되면 구체적인 연대와 연합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용 대표는 광주·전남 6곳을 시작으로 전국 23개 시·군을 순회하며 의정보고를 할 예정이다. / 최형석 기자



안전하기로, 건강하기로, 사랑하기로

## 약속된 플레이

약속된 플레이를 펼치면 약속된 행복이 찾아오니까

약속하길 잘했다!

함께, 약속 DB손해보험

# “지능형 CCTV로 범죄예방”...내년부터 학교안전도 챙긴다

## KISA, 지능형 CCTV 시험항목에 학교·지하철안전 추가 예정



지능형 CCTV 시험 인증을 위해 실제와 유사한 상황으로 구축한 영상데이터

지능형 CCTV의 확산으로 현장에서 범죄와 사고 예방 등의 가시적인 성과를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는 학교와 지하철 안전도 책임지는 우수한 성능의 지능형 CCTV가 많이 도입될 전망이다.

3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KISA는 지난해부터 경찰청과 협업해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능형 CCTV 성능을 개선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기존 스마트워치나 일반 CCTV로는 스토킹 범죄가 발생한 뒤에야 상황을 파악할 수 있어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반면 지능형 CCTV는 배회, 침입, 화재 등 사건·사고 가능성이 있는 CCTV 영상 속 행동을 인공지능(AI) 기술로 분석해 관제센터나 관할 기관에 바로 알려 보다 신속한 대처를 가능하게 한다.

이에 따라 KISA는 경찰청과 공동 연구반을 구성해 영상 데이터를 구축, 지능형 CCTV의 성능을 개선한 뒤 신변보호자를 대상으로 설치 작업을 벌였다.

김선미 KISA 물리보안성능인증팀장은 기자들과 만나 “지능형 CCTV로 월평균 1건 정도의 범죄를 예방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경찰로부터 전해 들었다”며 “실제로 범인

을 잡은 사례도 있다.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능형 CCTV 성능시험·인증 제도를 운영하는 KISA는 지난 8월 ‘스토킹 예방’과 ‘무인매장 안전’을 시험 항목으로 신설한 데 이어 내년에는 ‘스토킹 예방’ 분야를 더욱 고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학교생활 안전’과 ‘도시철도 안전’도 내년 지능형 CCTV 성능시험 항목으로 신설된다.

현재 KISA는 지능형 CCTV로 교내 폭행이나 외부인 침입 등 학교에서 벌어지는 위험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교육부와, 지하철 교통약자 안전과 부정승차 예방 등을 위해 서울도시철도공사와 각각 협업 중이다.

또 2025년 이후에는 좁은 곳에 인파가 몰리면서 생기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군중 밀집’ 등 새로운 시험 항목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KISA는 배회·침입·유기·쓰러짐·싸움·마케팅·방화·낙상·실종자·익수자 등 일반 분야 10개 항목과 스토킹 예방·무인매장 안전·드론 화재탐지·무인경비 로봇·치매노인 수색·요양병원 안전 등 안전 분야 6개 항목으로 지능형 CCTV 성능시험·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권정석 기자



이륜차 단속 현장

## “오토바이는 LED 달아야 안전”

### vs “다른 차량 시야 방해”

“이거 없으면 도로에서 잘 보이지도 않아요. 안전 때문에 달고 다니는데 단속을 왜 하나요?”

화요일인 지난 11월 28일 밤 9시 30분쯤 울산 북구 호계동 한 왕복 5차선 도로.

한 남성이 발광다이오드(LED) 등을 부착한 오토바이를 몰고 날카로운 빛을 뿜으며 달리다 경찰의 이륜차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적발됐다.

남성은 통고처분으로 스티커를 발부한 다는 교통경찰관 안내에 “도로에서 내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단속할 일도 아닌데 왜 단속을 하나”고 거칠게 항의했다.

이날 울산 북부경찰서가 진행한 이륜차 불법행위 집중단속에서 밤 9시부터 11시까지 적발된 사례는 모두 14건.

이 중 대부분(12건)이 이처럼 LED 전조등, LED 방향지시등과 같은 불법 부착물을 설치해 적발된 차들이었다.

불법으로 LED 등을 붙이고 달리는 오토바이가 10분에 1대씩 지나간 셈이다.

지난 2021년 9월부터 이륜자동차 튜닝에 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한 국토교통부 고시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시행됐다.

그로부터 2년여의 시간이 흘렀다. 그러나, 도로 위 라이더들의 오토바이 불법 개조 행위는 여전히 불법과 합법 사이를 넘나들고 있다. 특히 야간에 눈부심을 유발해 다른 차량 운전자들 시야를 방해하는 LED 전구 부착은 근절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실정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지난해 시행한 이

륜차 안전 단속에서 적발된 총 6천607건.

이 가운데 ‘불법등화 설치’ 또는 ‘등화장치 임의 변경’은 전체의 58.11%인 3천 839건에 달했다. 불법 LED 등 부착으로 적발된 라이더들은 도로 위에서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한 것이라고 항변한다.

기존 이륜차에 쓰이는 할로겐전구보다 조도가 높은 LED 등을 붙여야 어둠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대형 차량에 효과적으로 알려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이는 주변 차량 운전자들 시야를 방해해 오히려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행위다.

이륜차 등화장치 개조를 원하는 라이더는 설치 위치, 인증 부품 여부, 색상과 조도 등을 잘 가려 설치해야 한다.

현행법상 이륜차의 기존 등화장치 위치가 아닌 다른 곳에 광원을 설치하는 행위는 위법 사항이다. 차 양옆에 LED로 된 색상 띠를 두르는 등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올바른 위치에 등화장치를 교체해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인증받은 부품을 사용해야만 시야 방해로 인한 사고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이외에도 기존 등화 색상과 다른 색상의 광원을 사용하는 것도 불법이다. 인증받은 부품으로 위치와 색상을 지켜 설치했다면 관련 서류를 갖춰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구조변경 승인을 받으면 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울산본부 관계자는 “LED 등의 경우 빛이 퍼지지 않고 직선으로 나가서 마주 오는 차량에 눈부심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신재일 기자

## 20년 전 사망 처리된 남성, 살아 있었다...당시 시신은 누구

### 2003년 변사 처리된 50대, 소송 제기해 최근 주민등록 회복

#### 경찰 재수사 착수...“당시 시신 신원 확인 쉽지 않을 것”



20년 전 사망 처리된 50대 남성이 최근 소송으로 주민등록을 회복했다.

20년 전 시신으로 발견돼 사망 처리된 남성이 살아 돌아왔다. 당시 시신은 누구의 것인지?

경찰이 재수사에 나섰다.

2일 의정부시와 경찰에 따르면 A(57)씨는 20년간 서류상 사망자로 살았다.

경기북부를 떠돌며 일용직으로 일하거나 고물을 수집하며 홀로 생활했다.

그사이 어떤 계기로 자신이 사망 처리된 것을 알게 됐으나 절차가 복잡해 주민등록 복원을 포기했다.

그러던 지난 1월 의정부 녹양역 인근에서 노숙 생활을 하던 중 한 사회복지기관의 도움으로 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법원

에서 등록부 정정 허가 결정을 받았다.

이런 사연이 알려지면서 A씨가 어떻게 사망 처리됐는지 궁금증을 낳았다.

2003년 5월 26일 의정부시의 한 연립 주택 지하 방에서 목을 맨 남성 시신 1구

가 발견됐다.

며칠 전부터 약취가 난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을 확인했으나 시신 부패가 상당히 진행돼 신원 확인은 어려웠다.

집 하나를 여러 개 방으로 쪼개 월세를 준 형태인 데다 세입자들도 대부분 몇 달만 사는 떠돌이였기 때문이다.

당시 경찰은 탐문 끝에 이 방에 A씨가 살았다는 얘기를 듣고 노모 등 가족을 찾아 신원을 확인한 뒤 범포 혐의가 없어 단순 변사로 사건을 종결했다.

A씨는 이렇게 사망 처리됐다.

그리고 지난 6월, A씨가 등록부 정정 허가를 신청한 뒤 재판부가 사실 확인을 요청하면서 경찰도 이런 내용을 인지했다.

A씨는 경찰에서 “20년 전 지하 방에서 살았으며 돈이 생기면 다른 지역에서 생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행적 등을 정식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20년 전 사건이라 당시 상황을 기억하는 직원이 없어 재수사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당시 시신의 신원 확인 등 사건 처리 경위를 최대한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다.

/ 안홍호 기자

**미래는 그냥 오지 않는다**

“Hello, 미래!”

기다리기만 한다면 준비하지 않는다면 미래는 오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힘이 될 미래산업 KDB산업은행 키워가겠습니다

내일이 보고 싶다면 **KDB산업은행**

# “아들도 돌아오게 해달라”...풀려난 이스라엘 인질들 애끓는 호소

## 석방 후 집회서 첫 공개 발언...“남은 인질들도 풀려나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납치됐다가 최근 풀려난 이스라엘인들이 아직 가자지구에 억류된 인질들의 석방을 이스라엘 정부에 촉구했다.

2일(현지시간) AFP·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수천 명이 이스라엘 최대 도시 텔아비브의 국방부 청사 앞에서 인질 석방을 위한 대규모 집회에 참석했는데 석방된 이스라엘인들도 자리를 함께 했다.

석방자들이 공개적으로 발언하기는 처음이라고 AFP가 전했다.

하마스는 지난달 24일부터 일주일간 지속된 일시 휴전 기간에 인질 가운데 105명(이스라엘인 4명, 이중 국적자 81명, 외국인 24명)을 석방했는데 이들 대부분은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억류 당시 충격에서 어느 정도 회복된 이들은 정부가 남은 인질들의 석방을 위해 모든 조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가자지구에서 고통스러웠던 경험도 전했다.



가자지구에 남은 인질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이스라엘인들

지난달 29일 석방된 엘레나 트루파노프는 집회에서 “여러분이 없었다면 내가 여기에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고마움을 표현하려고 왔다”고 말했다. 이어 자기 아들이 아직 가자지구에 억류돼 있다며 “우리는 반드시 사샤(아들)가 돌아오게 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일시 휴전 전에 풀려난 요제베드 리프시츠(85)는 “그들(남은 인질들)을 지체

하지 않고 당장 집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정부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지난주 5세 딸과 함께 풀려난 다니엘 알로니(45)도 “딸들이 어린 나이에 불필요가 없는 것들을 봤다”며 안타까워했다.

지난달 28일 석방된 디차 하이만(84)은 가자지구 피랍 생활에 대해 “시작부터 음식이 줄었다”고 말했다.

가자지구에 아직 억류 중인 가족을 둔 이들도 집회에 나와 “하루하루가 그들에게 마지막일 수 있다”며 이스라엘 내각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이날 집회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일시 휴전이 1일 종료되고 나서 하루 만에 열렸다.

일주일 만에 전투가 재개되면서 가자 지구에 남아있는 인질 136명의 석방 가능성은 더욱 예단하기 어렵게 됐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하마스를 소탕할 때까지 전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이 벌어진 뒤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민심은 크게 악화했다.

2일 저녁 이스라엘 카이사리아에 있는 네타냐후 총리의 사저 앞에서는 네타냐후 총리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가 열렸다고 이스라엘 매체 예루살렘포스트가 보도했다.

/ 김석민 기자



2015년 네팔서 규모 7.8 대지진 발생(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 방글라데시 규모 5.6 지진, 수년내 최대규모...최소 80명 부상

방글라데시 내 진원 ‘이례적’

지진이 자주 일어난다.

방글라데시에서 규모 5.6 지진이 발생해 최소 80명이 부상했다.

이들 지진 대부분은 인접국인 인도와 미얀마에 진원을 두는 점에 비춰 이번 지진은 다소 이례적이다.

3일(현지시간) 현지 일간 데데일리스 타와 스페인 뉴스통신 EFE에 따르면 지

미국 지질조사국(USGS) 등에 따르면 방글라데시에서는 올해 들어 대부분이

## “내지에서 발생했더라면 큰 인명피해 났을 뻔”

진은 전날 오전 9시 35분께 남동부 치타공주 락수미푸르 디스트릭트(행정 단위)의 감간지에서 일어났다. 진원은 10km 깊이다.

규모 3.0~4.5인 지진이 약 100차례 발생했다. 이 가운데 5차례는 규모가 5이상이고, 8차례는 진원이 방글라데시 내에 있었다.

진동은 방글라데시 여러 지역에서 느껴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진이 일어나자 건물 안에 있던 사람들이 서둘러 대피하면서 적어도 80명이 다쳤다. 부상자 대부분은 의료공장 노동자들이다.

이번 지진은 방글라데시에서 수년 만에 발생한 최대 규모의 지진이다.

방글라데시는 인도와 유라시아 지각 판의 합류지점에 위치해 규모는 작지만

데데일리스타는 한 전문가의 말을 인용, 이날 지진이 인구 밀도가 높고 지진 대비가 제대로 안된 내지에서 일어났더라면 큰 인명피해가 났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 백도영 기자

## 파리 에펠탑 인근서 獨관광객 피습 사망...“신은 위대하다” 외쳐 영국인 등 2명 부상...프랑스인 용의자 “가자사태에 분노”



사건이 발생한 비르하켄 다리

2일(현지시간) 밤 프랑스 파리 시내에서 1명이 숨지고 최소 2명이 다쳤다고 AFP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용의자는 프랑스에서 태어난 프랑스인으로, 체포되기 전 ‘알라후 아크바르’(신은 위대하다)를 외쳤다고 경찰은 전했다.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센강을 가로지르는 비르하켄 다리 인근이다.

비르하켄 다리는 에펠탑에서 직선거리로 약 600m 떨어져 있다. 용의자는 토요일인 이날 오후 9시경 비르하켄 다리 인근 센강변에서 아내와 함께 있던 필리핀 태생의 독일인 관광객의 등과 어깨를 훔치기로 찔러 살해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용의자는 경찰이 출동하자 센강을 건너 도주하면서 다른 관광객과 60대 프랑스인을 둔기로 공격했다. 이 가운데 아내·아들과 함께 걷고 있던 영국 국적 관광객은 망치로 머리를 맞았다고 프랑스 언론은 전했다.

현장을 목격했다는 조제프(37)는 비명과 함께 사람들이 도망치며 “살려달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고 넘어진 남성이 공격당한 지 10분 만에 경찰이 도착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인근 광장에서 격렬하게 저항하는 용의자에게 테이저건(전기충격기)을 쏘 제압하고 체포했다. 프랑스 대테러 경찰은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용의자는 경찰에서 “아프가니

스탄과 팔레스타인에서 너무 많은 무슬림이 죽어가고 있다”며 가자지구 상황에 대해서도 분노한다고 말했다.

용의자는 파리 외곽 뇌이쉬르센 출신의 26세 남성이며 최근까지 파리 남쪽 예손 지역에서 부모와 함께 살고 있었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제랄드 다르마냥 프랑스 내무장관은 2016년 또 다른 공격을 계획한 혐의로 체포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용의자는 이 때문에 프랑스 정부의 잠재적 위험인물 명단에 올랐으며 심각한 정신적 문제로 약물 치료를 받고 있었다고 다르마냥 장관은 덧붙였다.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서 희생자에게 애도를 표하며 이날 사건을 “테러 공격”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대테러 검찰은 이제 프랑스 국민의 이름으로 정의가 실현되도록 진상을 규명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도 X에 “우리는 테러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적었다.

앞서 지난 10월 동북부 아라스 지역 강베타 고등학교에서는 러시아 체첸공화국 출신 20세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교사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남성은 이슬람 극단주의 성향 의심을 받아 프랑스 정

부의 잠재적 위험인물 명단에 올라가 있던 상태였다.

프랑스는 강베타 고교 사건 이후 안전경보 단계를 최고 수준으로 높였다.

그러나 내년 파리 올림픽을 7개월여 앞둔 시점에 또 이같은 사건이 발생해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지적했다.

/ 신지호 기자

## 남아공 ‘한국문화축제’ 성황...사흘간 현지인 3천여명 방문

남아프리카공화국 프리토리아에서 사흘간 열린 ‘한국문화축제’에 3천명 넘는 현지인이 찾은 등 성황을 이뤘다고 주남아공 한국문화원이 2일 밝혔다.

지난달 30일부터 이날까지 프리토리아에 있는 문화원에서 진행된 행사에는 ‘FEEL KOREA’를 주제로 K팝, K뷰티에서부터 한복, 매듭공예 등 전통문화까지 한

국 문화의 다양한 면모를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특히 넷플릭스와 협업으로 마련한 K드라마 상영관과 ‘오징어게임’으로 전 세계적 열풍을 몰고 온 ‘달고나 챌린지’, 한국식 노래방 체험 부스에 현지인들이 많이 몰렸다.

이 밖에 한국식 길거리 음식 문화를 경험해볼 수 있는 간이 편의점과 포장마차 부스에도 축제 기간 내내 대기 줄이 끊이지 않았다.

축제 마지막 날인 이날은 남아공 K팝 커버댄스 경연대회 결선이 열려 관객들의 뜨거운 환호 속에 대미를 장식했다고 문화원 측은 전했다.

/ 양희진 기자



남아공 ‘한국문화축제’에서 진행된 ‘달고나 챌린지’

동행. 매력. 특별한 서울

SEUL MY SOUL

깨끗하고 맛있는 아리수

- 더 편안한 물 수질검사 350항목
- 더 건강한 물 미네랄 37.6mg/L 함유
- 더 맛있는 물 100% 고도정수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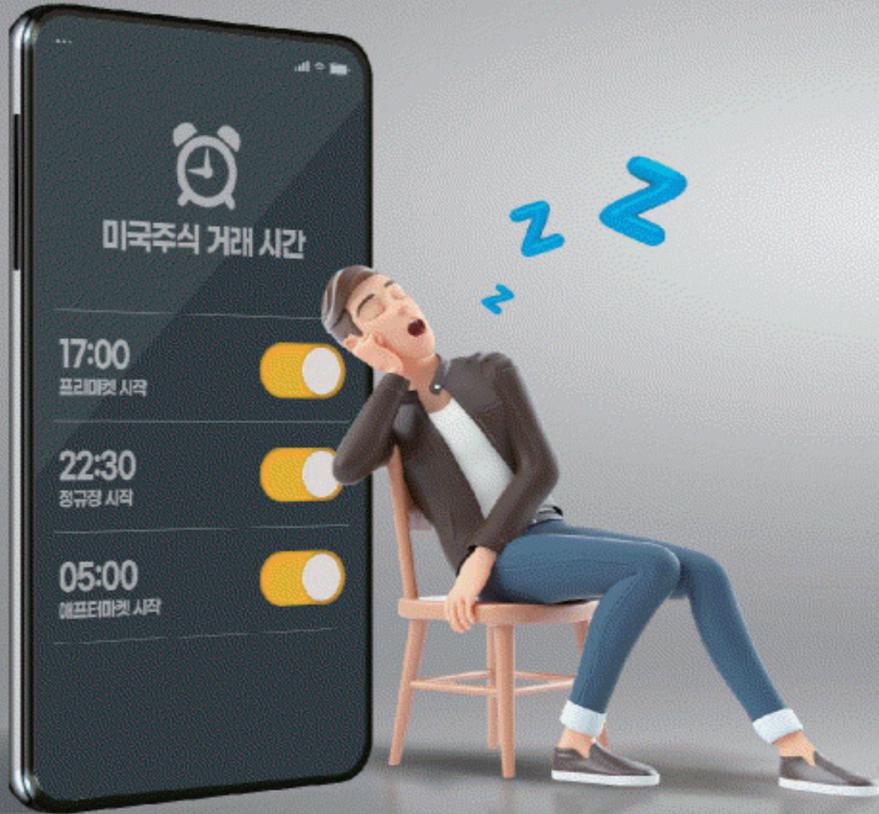
아리수

금융의 모든 순간

NH농협금융

# 미국주식 투자, 알람은 끄고

# 24시간 NH투자증권을 켜자



NH투자증권이 드리는  
해외 주식서비스

- ▶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
- ▶ 해외주식 리밸런싱 서비스
- ▶ 월배당 미국주식
- ▶ 미국주식 공모주 청약



## 언제까지 알람 맞춰가며 미국주식 하실래요? 이제 알람은 싹 끄고! NH투자증권만 딱 켜세요!

# NH투자증권에서는 24시간 미국주식 거래가 가능하니까요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금융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 등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주식은 자산가격 변동, 환율변동,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해외주식 매매수수료 0.25%(미국, 온라인 기준) 및 제비용 0.0008%(미국주식 기준, 매도시, 1센트 미만일 경우 1센트 부과, 온/오프라인 동일, 국가별 상이) 발생하며, 기타 수수료/제비용에 대한 상세 내용은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주식 24시간 거래] ※미국 주간거래 서비스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미국 금융산업규제국이 승인한 대체거래소를 통해 거래를 지원※ 미국 주간거래 미체결 주문은 프리마켓, 정규장, 애프터마켓으로 연결되지 않고 주간거래 종료 시 취소되며 증거금 해지는 주간거래 장 종료 후 순차적으로 처리 ※거래량이 매우 적어 가격변동이 크거나 또는 가격이 왜곡될 수 있음. ※ 당일 권리가 예정되어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당사 또는 거래소에서 매매를 제한할 수 있음 ※위 사유 외에도 시세확인 및 주문전송이 정규장 대비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023-00859호 (2023.03.15 ~ 2024.03.14)

투자, 문화가 된다

# 루마니아 “韓, 체르나보다 3·4호기 건설사업 적극 참여해달라”

## 산업차관, UAE·루마니아 고위급 면담...원전 세일즈 활동



한국수력원자력 홍보관 둘러보는 강경성 차관

산업통상자원부 강경성 2차관은 제 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를 계기로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원전 유망 협력국을 대상으로 한 원전 세일즈 활동을 펼쳤다.

3일 산업부에 따르면 강 차관은 지난 1~2일 UAE와 루마니아 고위급 인사와 면담하고, 유럽연합(EU) 에너지 총국장을 만나 ‘한·EU 에너지부 대화체’ 신설에 합의했다.

강 차관은 루마니아 에너지부 세바스티안-이오안 부르두자 장관을 만나 지난 6월 한국수력원자력이 수주한 체르나보다 원전 삼중수소제거설비 건설 사업을 발판으로 양국의 원전 협력이 발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루마니아 측은 한국이 체르나보다 3·4호기 건설 사업과 수력발전설비 건설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줄 것을 요청했다.

루마니아 측은 한국의 원전건설 능력을 두고 ‘on time’(시간 내에), ‘on budget’(예산 내에) 시공으로 유명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국 측은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3·4호기 건설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강 차관은 UAE 원자력공사 모하메드 알 하마디 최고경영자(CEO)를 만나서는 “그동안 바카 원전 건설에서의 성공을 바탕으로 신규 원전, 핵연료 협력, 제3국 공동진출 등의 원전 협력을 확대하자”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강 차관은 정부의 무탄소 에너지(CFE) 이니셔티브 홍보에 나섰다. 강 차관은 디테 줄 요르겐센 EU 에너지 총국장과 면담에서 한국의 CFE 이니셔티브를 소개하면서 “에너지 안보와 탄소 중립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원전, 수소, 탄소 포집·

저장·활용(CCUS) 등의 무탄소 에너지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EU 측은 탄소중립을 위해 기술 중립적인 관점에서 모든 무탄소 에너지를 활용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한국 측의 CFE 이니셔티브 제안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양측은 내년 초 ‘한·EU 에너지 대화체’를 신설하고 에너지 안보,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CFE 이니셔티브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강 차관은 “향후 고위급 면담 등 적극적인 세일즈 활동으로 국내 원전 기업들

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수출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UAE 두바이에서 열린 이번 COP28에서 한국을 포함해 미국, 프랑스, 영국, UAE, 스웨덴 등 22개국이 ‘넷제로 뉴클리어 이니셔티브’ 지지 선언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선언문에는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 원전의 청정에너지 인정 ▲ 2050년까지 전 세계 원전 용량을 3배로 확대하기 위한 국가 간 협력 약속 ▲ 금융·재정·기술 개발·공급망 확보 등의 국가적 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 이윤진 기자



서울 여의도 '더현대 서울'

## 더현대 서울 백화점, 연매출 1조원 “개점 33개월 만의 기록”

현대백화점 '더현대 서울'은 올해 매출이 전년 1조원을 넘었다고 3일 밝혔다.

더현대 서울은 2021년 2월 26일 서울 여의도에 문을 열어 2021년 매출 6천700억원, 작년 매출 9천509억원에 이어 올해 1월부터 전반기까지 1조41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더현대 서울은 개점 33개월 만에 ‘연매출 1조원 돌파’가 되면서 종전 기록을 2년 2개월 앞당기며 최단기간 기록을 세웠다

정지영 현대백화점 사장은 “더현대 서울은 단순 쇼핑 공간에 머물던 백화점에 대한 인식을 깨고 ‘오프라인의 재발견’, ‘공간 경험의 가치 극대화’ 등 리테일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대한민국 대표 랜드마크 자리 잡았다”고 말했다.

이어 “최단기간 1조원 돌파 기록을 거둔 데는 글로벌 수준의 MD(상품 기획) 역량과 더현대 서울에서만 만날 수 있는 K-패션 브랜드 등 참신한 콘텐츠 발굴 노력, 이로 인한 객단가 상승 등의 요인 덕분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더현대 서울은 ‘외국인 관광객’을 매출 증대의 핵심 동력으로 꼽았다.

더현대 서울의 외국인 매출은 전년과 비교해 작년엔 731.1% 증가했으며 올해 1~11월에는 891.7% 늘었다.

이는 올해 현대백화점 전체 외국인 매출 평균 성장률(305.2%)의 3배에 이른다. 특히, 더현대 서울 외국인 구매 고객 중 20~30대 비중은 72.8%를 차지한다.

더현대 서울은 내외국인 MZ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BTS(3월), 르세라핌(5월), 아이브(6월), ITZY(8월), 블랙핑크(9월) 등 K-팝 스타 관련 팝업스토어를 꾸준히 유치했다.

이밖에도 더현대 서울은 전체 영업 면적의 절반을 실내 조경이나 고객 휴식 공간으로 꾸민 점, 마케팅과 시에(SIE) 등 20·30세대가 열광하는 온라인 기반 패션 브랜드의 ‘백화점 1호 매장’을 유치한 점 등이 연매출 1조원 달성에 기반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 백서현 기자

## 내년 1월부터 레이싱 게임서 제네시스 새 콘셉트카 만나다

제네시스 브랜드의 새 콘셉트 모델을 자동차경주 게임 속에서 만날 수 있게 됐다. 제네시스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e스포츠 토너먼트 ‘그란 투리스모 월드 시리즈’ 파이널 경기에서 ‘제네시스 엑스(X) 그란 베를리네타 비전 그란 투리스모 콘셉트’를 실물 전시를 통해 처음 선보였다고 밝혔다.

‘그란 투리스모 월드 시리즈’는 세계적인 디지털 레이싱 게임 ‘그란 투리스모 7’의 글로벌 챔피언십 대회로, 올해 10 회째를 맞았다.

제네시스는 지난해부터 그란 투리스모 공식 파트너로 활동하며 제네시스

엑스 콘셉트와 G70을 기반 삼아 GR3 콘셉트와 GR4 GT 등을 게임 내 선보인 바 있다.

‘제네시스 엑스 그란 베를리네타 콘셉트’는 제네시스의 ‘역동적인 우아함’을 감성적으로 구현했다. 또 레이싱 게임 특색에 맞는 디자인으로 섬세하면서도 강렬한 브랜드 정체성을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디자인은 외관에 적용된 마그마(Magma) 색상을 통해 열정적인 한국 고유의 이미지도 표현했다.

이번 콘셉트 모델은 내년 1월부터 그란 투리스모 7 게임 내에서 만나볼 수 있다. / 최규현 기자

**서울특별시**

### 자율주행도시 서울에서 미래모빌리티를 경험해보세요!

**서울자율차**  
SEOUL AUTONOMOUS VEHICLE

상암A01-02-21  
- 운행시간 > 9:30~17:00 (공휴일 미운영)  
- 탑승요금 > 2,000원 (A21: 1,200원)

창경궁A01  
- 운행시간 > 9:30~17:00 (주말·공휴일 미운영)  
- 탑승요금 > 무료

여의도A01  
- 운행시간 > 10:00~16:00 (주말·공휴일 미운영)  
- 탑승요금 > 무료

**서울자율차 호출앱(TAP!) 사용방법**

- QR코드 촬영 또는 구글 플레이/앱 스토어에서 TAP! 앱 설치하기
- 회원가입 및 결제정보 등록
- 탑승정보 선택하기
- 앱에서 좌석정보 확인하고 탑승하기

\* 노선별 세부 운행정보는 서울자율차 호출앱 공지사항 참고

## 중기부, 납품대금 미지급 등 기업 수·위탁거래 불공정행위 조사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4일부터 기업 간 수·위탁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바로 잡기 위해 '2023년도 수·위탁 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수·위탁 거래 관계에 있는 기업 1만5천개(위탁 3천개·수탁 1만2천개)를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이뤄진 수·위탁거래의 납품대금 미지급, 약정서 미발급 등 기업 간 불공정거래 행위 전반에 걸쳐 진행된다. 중기부는 상생협력법 위반이 확인된 기업에 개선요구 등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중기부는 특히 최근 고금리 여파로 중소기업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위탁기업들이 수탁 중소기업에 납품대금을 제때, 제대로 지급했는지를 중점 조사할 방침이다.

또 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 이후 처음 실시하는 실태조사인 만큼 조사 과정에서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이 필요한 계속적 거래에 대해서는 연동 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지도할 예정이다. / 백건우 기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발언

## GS샵, 태국서 ‘해외시장 개척단’ 행사 중소기업 판로 지원

GS샵은 국내 중소기업의 아시아 국가 진출을 돕는 제11회 해외시장 개척단 행사를 태국에서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GS샵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10여개 한국 중소기업이 태국·말레이시아 유통업체들과 수출을 위한 1대1 상담을 63차례 진행하도록 지원했다.

총 310만 달러(40억원) 규모의 수출 상담이 이뤄졌고, 주방용품 전문기업 드림세프는 10만 달러(1억3천만원) 규모 가계약을 체결했다.

협력사 가운데 비즈타릿과 에스비 코스메틱스, 바로출, 농업회사법인 담우 등

은 샘플 거래를 성사했다.

GS샵은 협력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태국 유통시장에 대한 교육과 시안 파라곤, 엠포리움등 현지 유통업체 견학 기회를 제공했다.

GS샵은 2015년 말레이시아-태국을 시작으로 2016년 말레이시아-태국, 2017년 인도네시아-태국, 2018년 베트남-인도네시아, 2019년 태국-베트남에서 총 10차례 ‘해외 시장 개척단 행사’를 열었다.

2020년부터 작년까지는 코로나 사태로 행사를 중단했다가 이번에 재개했다.

허남준 GS샵 방송사업지원팀장은 “K팝과 K드라마 등 K컬처 위상이 높아지면서 K상품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만큼 우수한 상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오창수 기자

Seminar & Export Conference  
“태국 방콕 해외시장개척단” 설명회 및 수출상담회  
일시: 2023. 11. 28 ~ 29 | GS SHOP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하나금융그룹



# 하나를 만나면

신규·휴면 손님 대상  
3개월간 300만원까지

하나를만나면  
CMA(RP형)

7% (세전)  
연 %



## 하나를 만나면 CMA(RP형)

- 기간 : 2023년 10월 13일(금)~12월 31일(일)
- 대상 : 아래 대상에 해당하면서 본 광고의 이벤트 참여 QR코드로 비대면 종합매매계좌를 개설한 손님
  1. 하나증권 최초 신규 손님(주민등록번호 기준 1인 1회 참여 가능)
  2. 이벤트 신청 전일 기준 3개월간 하나증권 잔고가 0원 손님

- 하나가 드리는 이벤트 혜택
- 하나. 하나를 만나면 CMA(RP형)
- 둘. 국내/해외 주식거래 우대수수료 적용
- 셋. 애플 소수점주식 1천원상당 증정

문의 : 하나증권 손님케어센터 1588-3111

**[이벤트 유의사항]** \*본 이벤트는 하나증권의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단, 기 조건 충족 손님 제외) \*본 광고의 QR 코드가 아닌 타 매체를 통해 계좌개설한 경우 혜택 적용이 불가합니다. \*본 이벤트는 개인손님 대상으로 진행하며 주민등록번호 기준으로 1인 1회 참여 가능합니다. (법인, 외국인 제외) \*본 이벤트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 및 SMS 마케팅 이용에 동의하신 손님이 한하여 참여 가능합니다. \*연락처가 상이하여 본인확인이 어렵거나 계좌가 폐쇄되는 경우 등에는 혜택을 적용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투자자는 금융상품에 대하여 금융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가입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금융투자상품은 자산가격 변동, 환율 변동,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CMA 입금액은 RP에 투자됩니다. \*RP수익률은 입금 시 회사가 고지하는 약정수익률이 적용되며, 이는 시장금리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우대수수료 적용기간(연 7.0%, 세전, 계좌개설일로부터 3개월) 종료 시에는 종료 시점에 고지된 수익률(2023.09.10 기준 연 3.15%, 향후 변동 가능)이 적용됩니다. \*국내주식 온라인 매매수수료는 0.0141639%, 해외주식 온라인 매매수수료는 국가별, 주문방법에 따라 상이(미국 0.25%, 중국 0.30%, 등)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나증권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주식 매매시 주당 0.003 USD, 매도 시 0.0008%, 중국주식 매매시 0.00841%, 매도 시 0.05841% 제비용을 부과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나증권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종목에 대하여 소수점 거래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은 아니며, 증권사에 소수점 거래가 가능한 종목 확인이 필요합니다. \*증권사는 여러 투자자의 소수 단위 매매주문을 취합하여 집행함에 따라 투자자의 매매 주문과 체결 시점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매매 가격 혹은 실제 배당받는 주식 수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소수 단위 주식은 타 증권사로 대체가 불가능합니다.(소수 단위 보유분에 대해서도 1주 단위 계좌 대체는 가능) /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3-03784호(2023.10.16~2023.12.31) \*하나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23-194호(2023.10.18~2023.12.31)



이벤트 참여 QR코드



# 서울서 세계 최초 심야 자율주행버스 정기운행...합정~동대문

## 야간수요 많은 대학가·쇼핑몰 구간...당분간 무료·태그 환승할인

서울시는 4일 오후 11시30분부터 세계 최초로 심야 자율주행버스의 정기 운행을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심야 자율주행버스는 대학가, 대형 쇼핑몰 등이 밀집해 심야 이동 수요가 많은 합정역~동대문역 구간 중앙버스전용차로 9.8km를 평일 오후 11시30분~다음 날 오전 5시10분 운행한다. 노선번호는 '심야 A21'이다.



서울시 심야 자율주행버스

일반 시내버스와 동일한 크기의 대형 전기 자율주행버스 2대가 합정역과 동대문역에서 각각 오후 11시30분에 출발해 70분 간격으로 순환한다.

합정역~홍대입구역~신촌역~아현역~서대문역~세종로(교)~종로1가~종로5가~동대문역(홍인지문) 구간 중앙정류소 40곳(편도 20곳)에서 일반 시내버스와 동일하게 승하차할 수 있다.

심야 자율주행버스가 운행을 시작하면 중앙정류소에 설치된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에 실시간 도착시간이 제공되며,

네이버·다음 포털 등에서도 실시간 위치와 도착시간이 안내된다.

당분간은 무료로 운영한다. 일반 시내버스와 동일하게 교통카드를 태그하고 탑승하면 된다. 무료이긴 하지만 환승할인이 연계되기 때문에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고 시는 당부했다.

시는 안정화 과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으로 심야 자율주행버스를 유료로 전환

할 계획이다.

요금은 서울시 자유회차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기존 심야버스 기본 요금인 2천500원보다는 다소 낮게 책정할 계획이라고 시는 밝혔다.

그간 시는 심야 자율주행버스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 중앙버스전용차로에 교통 신호 개방 인프라(기반시설)를 설치하고 외부 전문가와 함께 안전 운행 여건을 검

증해 왔다.

전 좌석에 안전벨트를 설치하고 입석을 금지하는 등 다양한 안전대책도 마련됐다. 당분간 특별안전요원 2명이 탑승해 승객의 승하차를 지원한다.

인근 소방서·경찰서와 심야 긴급연락체계를 구축하는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도 강화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청량리역까지 운행구간을 연장한다. 운행 결과를 토대로 단거리 순환이 아닌 도심과 시 외곽을 연결하는 간선기능의 대형 전기 자율주행버스 서비스를 정착시킨다는 목표를 세웠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심야 자율주행버스 정기운행으로 자율주행 기반 미래 모빌리티 도시의 꿈이 현실로 성큼 다가왔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자율주행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 송원기 기자



두바이서 전남 식품 판촉 행사

## 전남도, 두바이서 농수산물식품 판촉 행사 개최

전남도는 나주 배, 파프리카, 김, 유자 등 전남 대표 식품의 중동 지역 수출 확대를 위한 판촉 행사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도는 지난 2일 아랍 에미리트 최대 도시 두바이에서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가 운영하는 한국식품 수출 안전사(FA)에서 판촉 행사를 개최했다. 이슬람 문화권인 현지 수요를 감안해 전남 대표 농수산물 중 배, 유자, 김, 김치, 파프리카, 고구마, 배 주스, 두부스낵 등 8개 품목을 선정·판촉 행사를 열었다.

현지인들은 현지 과일보다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큰 관심을 갖고 구매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도는 전했다. 나주 배는 두바이 현지 시장을 대상으로 한 샘플 테스트에서 반응이 좋아 다수의 현지 식품 상점 입점이 결정됐다.

이슬람교 신자가 76%에 달하는 아랍 에미리트는 유류의 경우 이슬람 율법으로 허용된 음식만을 섭취하도록 규

제하고 있지만, 식물성 식품은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하다. 이 때문에 도는 농산물과 해조류 위주로 시장 개척에 나서고 있다.

김혁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두바이지사는 "코로나19 이후 한국 영화와 드라마의 영향으로 한국식품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지만 현지 소비자가 구입할 수 있는 곳은 많지 않다"며 "한국식품 수출 안테나숍이 아랍권 전역에 수출을 확대하는 전초기지로써 배와 김, 김치, 유자 등을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록 도지사는 "특정 국가에 집중됐던 농수산물 수출이 한류의 영향으로 점차 전 세계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며 "중동에 부는 뜨거운 한류를 활용해 남도 음식이 이슬람문화와 자연스럽게 융합되도록 신시장 개척을 위한 지원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권윤희 기자

## 김태흠 충남지사, COP28서 "탄소중립 선도...모범사례 만들 것"

### 12개 지방정부 대표로 지방정부 기후행동 정상회의 세션서 토론



COP28 지방정부 기후행동 정상회의 세션 참석한 김태흠 충남지사

김태흠 충남지사가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지방정부는 지역 기후 위기 대응의 책임 주체"라며 "충남도가 탄소중립을 선도하고, 모범사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3일 충남도에 따르면 COP28 참석을 위해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 중인 김

지사는 지난 2일(현지시간) '지방정부 기후행동 정상회의' 세션 토론에 참석해 도의 탄소중립 정책을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내 화력발전소의 절반이 충남에 석유화학단지과 제철소 등도 밀집해 있다"며 "이에 따라 충남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지역이지만, 탄소배출 저감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이루기 위해 '탄소중립경제특별도'를 선포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석탄화력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 저탄소 산업으로의 전환, 수소 연료전지 집중 육성, 탈 플라스틱 정책 등을 펼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기후재난에 책임 있는 국가들이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충남은 블룸버그와 함께 개발도상국의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기금 조성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지방정부가 구체적인 전략을 세워 성공 사례를 만들어야 하고, 활발한 협력도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회의의 통해 전 세계가 함께 탄소중립이라는 큰 목표에 도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지방정부 기후행동 정상회의는 세계

각국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 국가와 지방정부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COP28과 블룸버그 자선단체가 함께 마련한 행사다.

COP에 지방정부 대표가 특별 초청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미국 워싱턴, 프랑스 파리, 일본 도쿄, 폴란드 바르샤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등 단체장과 함께 김 지사도 탄소중립 정책을 선도하는 세계 12개 지방정부 대표로 참석했다.

/ 남형철 기자

## "서해5도 살면 1인당 월 20만원씩"...예산 막판 조율

### 백령·대청·연평도 등 정주생활지원금 인상 추진

백령도·대청도·소청도·대연평도·소연평도 등 서해5도 주민이 매달 받는 정주생활지원금이 내년부터 20만원으로 오를 전망이다. 인천시는 현재 10년 이상 거주시 월 15만원, 6개월~10년 미만 거주시 월 8만원인 정주생활지원금을 내년부터 일괄적으로 20만원씩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1일 밝혔다.

서해5도에 6개월 이상 살고 있는 주민은 올해 10월 기준으로 총 4천981명이다.

이들에게 월 20만원씩을 지원하려면 연간 12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 예산은 기존대로 정부 80%, 인천시 14%, 옹진군 6% 비율로 분담하게 된다.

정부는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2011년부터 주민 정주생활지원금과 노후주택 개량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해 각종 불편을 겪는 서해5도 주민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다. 정주생활지원금을 월 2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은 민선 8기 유정복 인천시장의 공약사업이다.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에도 불구하고 서해 최북단 삶의 터전을 떠나지 않는 주민들에게 일종의 위험수당이나 보상적 성격의 지원금을 획기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인천 옹진군 주민의 42%가 거주하는 서해5도에서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점을 고려해 인구소멸 대응 차원에서 지원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서해5도 정주생활지원금은 지급 첫 해인 2011년 월 5만원이었던 것이 2018년 10만원, 지난해 12만



꽃게 손질하는 연평도 어민들

원, 올해 15만원으로 인상됐다.

예초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정주생활지원금 예산이 올해와 같은 77억원 규모로 반영됐지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인상 필요성에 공감한 여야가 120억원 규모로 증액해 통과시킨 상태다. 기본적으로 현금성 복지 예산 확대에 부정적인 정부가 국회의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어떤 입장을 취할지가 마지막 변수다. 인천시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와 분회의 처리라는 최종 관문을 앞두고 행정부시장이 지난주 국회를 방문해 증액된 예산안이 확정되도록 여야의 협조를 요청하는 등 총력전을 펴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서해5도는 점경지역 가운데 북한의 무력도발로 민간인 피해자가 발생했던 유일한 지역"이라며 "이들 섬에 민간인이 살지 않아 군사요새화될 경우 무력충돌의 위험성이 더 커지는 만큼 여러 특수성을 감안한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 권정석 기자

**친환경 에너지 전문기업**  
**종합사업회사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인터내셔널이 포스코에너지와 하나가 되어 더 밝고 더 따스한 미래를 열어갑니다

posco INTERNATIONAL With POSCO

# SAMSUNG

당신은 하늘을 보세요  
저는 공기를 볼게요

집 안팎 공기를 10분마다 학습해 미세먼지에 대응하는 **맞춤형정 AI+**



\* 맞춤형정 AI+ 학습된 실내외 공기질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습이 꺼져 있을 때에도 10분마다 제품 내 센서 동작 및 공기질을 예측하여 미리 ON 동작. 실외 공기질은 지역별 공기질 측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므로 실 사용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한국표준협회 주관 AI+ 인증 취득 - 맞춤형정 AI+ 기술에 대한 제품 소프트웨어 품질을 인증 취득(관련 국제 표준: ISO/IEC 25025:2016) \* 맞춤형정 AI+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최초 1회 SmartThings에서 인증기능 설정으로 설정 필요  
\* SmartThings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SmartThings 앱 설치 및 인증, 무선 네트워크 연결이 필요합니다.



## BESPOKE 큐브™ Air

가전을 나답게.

# 경기도, 선감학원 옛터 보존·활용 용역...근대문화유산 등록추진

경기도가 일제강점기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아동·청소년 인권유린이 자행된 안산 선감학원의 보존과 근대문화유산 등록에 나선다.

도는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선감학원 옛터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 수립 연구 용역비 1억5천만원을 편성했다고 3일 밝혔다.

용역에서는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 460-1 일원 선감학원 옛터(8만5천㎡) 및 건물 11개 동(면적 2천㎡)에 대한 현황 조사와 함께 옛터 보존·관리에 대한 기본구상을 마련하게 된다.

또 근대문화유산 등록과 역사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사례조사도 진행한다. 연차별·단계별 추진방법 등 기본계획과 운영관리계획을 제시하고, 역사·사회



지난해 10월 선감학원 옛터 방문한 김동연 경기도지사

문화·경제적 파급효과도 분석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선감학원 옛터 보존·관리(유적지 보호사업)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지난해 10월 선감학

원 사건을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규정하면서 권고한 사항이기도 하다"며 "용역 결과를 토대로 선감학원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고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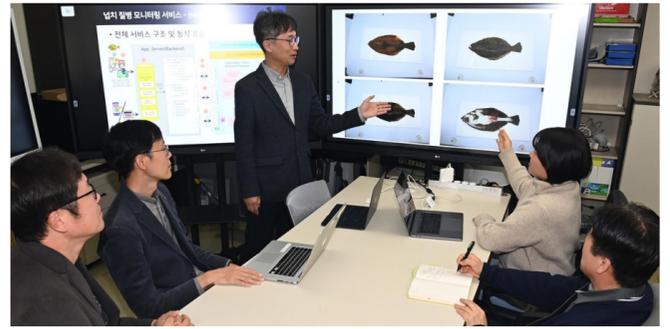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선감학원은 일제강점기인 1942년부터 안산 선감도에 설립·운영된 시설로, 8~18세 아동·청소년들을 강제 입소시켜 노역·폭행·학대·고문 등 인권을 짓밟은 수용소다.

1946년 경기도로 관할권이 이관돼 1982년 폐쇄될 때까지 인권침해 행위가 지속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원생 다수가 구타와 영양실조로 사망했고 섬에서 탈출을 시도한 834명 중 상당수는 바다에 빠져 목숨을 잃었다.

2018년 경기도기록관에서 4천691명의 퇴원 아동 명단이 기록된 대장이 발견되기도 했다.

/ 송원기 기자



넵치 질병 모니터링 서비스

## 양식장 어류 질병 모니터링에 블록체인 기술 활용한다

블록체인 기술을 양식장 넵치와 같은 어류 질병 모니터링 등에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 개발됐다.

블록체인의 데이터 저장 확장성과 분석 효율성 문제를 해결해 특정 분야만이 아닌, 다양한 산업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제주해양수산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 등과 협력해 어류 질병을 신속하게 판단하고 대응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 저장·분석 플랫폼을 개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 플랫폼은 제주도에서 수행한 어류 개체 영상 데이터 구축사업으로 수집한 질병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다.

양식장에서 촬영한 넵치 사진과 다양한 데이터를 탈중앙 스토리지 및 블록체인에 저장해 다양한 인덱스를 구축하고, 빠른 검색과 분석을 통해 질병 발생을 판단하고 예측할 수 있다.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한 시티랩스는 스마트폰으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앱을 개발, 내년 앱스토어에 등록하고 비아이메트릭스는 블록체인 플랫폼에 수집된 데이터를 가시화하는 솔루션으로 분석 편의성을 제공할 예정이다.

앞서 ETRI는 지난해 10월 연구진이 구축한 앱 '아쿠아 세이프'를 시연했다.

사용자가 질병이 의심되는 넵치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앱에 올리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증상 및 질병 인식 결과를 제공하고, 이후 질병 관리사가 항생제 처방 등의 전문적인 조치를 전달하는 방식이다.

이런 과정 중에 발생한 모든 데이터는 블록체인에 저장돼 조작되지 않은 신뢰성 있는 데이터로서 안전한 수산물의 생산, 유통, 질병 예방, 보상 등의 서비스에 활용된다.

ETRI 김지용 스마트데이터연구실장은 "이번 연구가 바탕이 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의 응용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손현수 기자

## 소방가족도, 동료들도 눈물...순직 소방관 조문 행렬

### 고 임성철 소방장 시민분향소 추모객 발길 이어져

"제 아들도 소방관인데..."

2일 제주시 연동 제주소방안전본부 1층 회의실에 마련된 고 임성철 소방장의 시민분향소. 2일 제주시 연동 소방안전본부 1층 회의실에 마련된 고 임성철(29) 소방장 합동분향소를 찾은 한 중년 여성 추모객은 분향소에 들어서기 전부터 눈물을 쏟아냈다.

소방관 아들을 뒀다는 이 추모객은 "제주에 여행 왔다가 임 소방장의 부고를 듣고 마음이 아파 조문하러 왔다"고 했다.

이 추모객은 연신 흐르는 눈물을 훔치

며 영전에 국화꽃을 올리고 추모의 인사를 한 뒤 방명록에 '꽃다운 청춘을 바쳐서 목숨을 기꺼이 내어주시는 소방관님. 천국에서 영면하시길'이라는 글을 남겼다.

소방공무원들도 근조 리본을 착용한 채 침뚫은 표정으로 분향소를 지켰다.

김성중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제주도청 간부 공무원들도 이날 분향소를 찾아 헌화·분향했다. 합동분향소는 2~4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운영된다.

제주시 부민정례식장에 마련된 고인의 빈소에도 동료 소방관들을 비롯한 조문객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남하영 소방정장도 이날 제주를 찾아 사고 현장을 확인한 뒤 빈소를 찾은 예정이다.

제주도 누리집에 마련된 온라인 추모관(https://www.jeju.go.kr/119/notice/memory.htm)에도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당신의 숭고한 희생과 노고 잊지 않겠습니다' 등 추모의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온라인 추모관에는 3천174명이 헌화하며 고인을 추모했다.

임 소방장의 영결식은 5일 오전 10시



고 임성철 소방장 시민분향소

제주시 한라체육관에서 제주도청장(葬)으로 엄수된다. 영결식 당일엔 오전 5시 30분 발인 후 고인이 근무했던 제주동부소방서 표선119센터와 생가, 화북성당 등을 거쳐 영결식장에 도착할 예정이며 같은 날 오후 3시경 국립제주추모관에서 안장식(봉안식)이 진행된다.

/ 권도훈 기자

## 해경 부산항공대, 대형 헬기로 방공식별구역 밖 응급환자 이송



해경 응급 환자 헬기 이송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2일 오후 2시 25분께 부산항공대 소속 대형 헬기(S-92)로 포항 구룡포 동쪽 130해리 해상에서 발생한 응급환자를 양산 부산대학교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다고 밝혔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이날 오전 11시 54분께 제주 선적 석유제품운반선 4천(급 N호 선장 A씨가 안면 등이 부어오르고 손과 발이 마비되는 증상을 보인다)는 신고를 받았다.

포항해경은 우리나라 항공방공식별구역(KADIZ)으로부터 약 80해리 떨어진 현장에 강한 바람과 4m 높은 파고가 일고 있다며 남해해경청 상황실에 대형 헬기 지원 요청을 했다.

대형헬기는 낮 12시 18분께 김해공항을 이륙해 약 1시간 만에 현장에 도착했고 항공 호이스트를 이용해 환자를 안전하게 올렸다.

헬기에는 조종사 2명 이외에 전담사 1

명, 구조대원 5명 등 모두 8명이 타고 있었다. 전신이 마비된 선장은 헬기에서 응급구조사 등의 도움을 받으며 양산 부산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됐고, 현재 의식을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해해경청에 운용하는 대형헬기는 최장 4시간 30분을 비행할 수 있는 헬기로 해경과 소방 등 구조기관에서 보유한 헬기 중 가장 큰 헬기다.

남해해경청 관계자는 "현지 기상이 초속 14m로 강하게 불고 있었고 파고가 높아 포항항공대의 중소형 헬기 대응이 곤란해 대형헬기를 투입했다"며 "헬기 기장과 승무원의 협력으로 기상이 안 좋은 상황에서 환자를 안전하게 이송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남해해경청은 대형헬기 1대와 중형헬기 1대 등 2대를 운용하고 있고 부산에 있는 중앙해양특수구조단과 연계한 구조활동 등 다양한 임무에 투입되고 있다.

/ 송진영 기자

## 마산어시장·마산수산물시장에서 수산물 사면 최대 2만원 환급

### 경남도, 10일까지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수산물은 겨울이 제철이다.

경남도는 수산물 물가 안정과 연말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고자 오는 4일부터 창원시 마산어시장·마산수산물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구매비용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행사를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경남도는 시장 1곳당 예산 1억원씩을 확보해 오는 10일까지 국내산 수산물 구매 금액의 최대 40%, 2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한다. 시장 안 행사부스에서 국내산 수산물 결제 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을 받는다.

당일 5만원 이상 쓴 고객은 온누리상품권으로 2만원, 2만5천원 이상~5만원 미만은 사용한 고객은 온누리상품권으로 1만원을 받는다.



마산어시장 겨울 풍경

일반 수산물과 젓갈 등은 환급 대상이지만, 제로페이 온라인 상품권 할인 품목, 정부 비축 수산물 반출 품목, 횡집 등 일반음식점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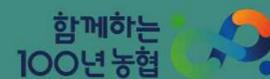
/ 강찬민 기자

## 변화하는 부산은행 변함없는 든든한 동반자

우리 아이들의 해맑은 미소처럼  
변함없이 지켜야 할 가치가 있습니다

고객과 지역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하는 든든한 동반자  
BNK부산은행이 되겠습니다

지역과 함께하는 든든한 동반자 **BNK 부산은행**



# 항상 그리워하던 고향이 도착했습니다!

고향의 맛, 고향의 그리움이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로 마음을 전하고  
우리 농축산물을 가정에서 받아보세요



###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원하는 지자체(고향 등)에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세제 혜택과 기부금의 일정액을 담례품으로 제공하는 제도

### 고향사랑기부제 혜택

기부금 세액 공제  
10만원까지 전액 공제(10만원 초과분 16.5% 공제)  
농축산물 담례품 제공  
기부금의 30% 상당 농축산물 담례품 지급

### 고향사랑기부 신청 방법

온라인 : 정부 종합정보시스템 [고향사랑e음]  
오프라인 : 전국 농협은행 · 농축협  
※ 기부 한도액 : 1인당 연간 500만원 이내(법인 불가)

# 서울대 미식축구부, 동의대 꺾고 50년 만에 대학선수권 정상

## 경기 종료 직전 이상욱의 가로채기로 19-17 승리



50년 만에 대학선수권 정상을 밟은 서울대 미식축구부

서울대학교 미식축구부가 50년 만에 대학선수권 우승을 차지했다. 서울대는 2일 오후 경북 군위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63회 전국 대학 미식축구 선수권대회 결승에서 동의대에 19-17로 승리했다. 올해 전국대학 미식축구 선수권대회는 서울대를 비롯

한 8개 팀이 참가한 1부 리그 격 '타이거볼'과 4개 팀이 출전한 '펠린지볼'로 나눠 대회를 진행했다. 1963년 창단한 서울대 미식축구부 '그린 테러스'는 1968년부터 1973년까지 대학선수권대회 연속 우승을 차지하며 전성기를 구가했다.

이후 우승과는 인연을 맺지 못했던 서울대는 올해 8강에서 경북대, 4강에서 동아대를 제압한 뒤 결승에서는 동의대까지 제치고 정상을 정복했다.

1쿼터 세이프티(상대 공격을 상대 엔드존에서 끝마치는 수비·2점)와 필드골(3점)로 먼저 5-0으로 앞서간 서울대는 2쿼터 동의대 배준호에게 터치다운(6점에 보너스 킥 1점)을 허용해 5-7로 역전당했다.

서울대는 3쿼터 필드골을 내렸으나 러닝백 문지민의 13야드 중앙 돌파로 7점을 추가해 12-10 재역전에 성공했다. 4쿼터에는 강무성이 12야드 측면 돌파로 7점을 추가했고, 동의대는 경기 종료 5분을 남기고 쿼터백 최경서의 그림 같은 패스를 리시버 조지훈이 터치다운으로 연결했다.

서울대는 경기 종료 직전 동의대의 마지막 공격에 3점짜리 필드골을 내줄 위기였으나 코너백 이상욱이 극적인 가로채기로 공격권을 가져와 경기에 마침표를 찍었다. 대회 최우수선수(MVP)는 서울대 라인맨 정진욱이 차지했고, 서울대 강보성 감독은 지도자상을 받았다. / 최준용 기자



남자 주니어 국가대표 선수단

## 남자하키 주니어 대표팀, 월드컵 출전 위해 말레이시아로 출국

한국 남자 주니어 하키 국가대표 선수단이 국제하키연맹(FIH) 주니어 월드컵 출전을 위해 2일 출국했다. 올해 FIH 주니어 남자 월드컵은 5일부터 16일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다.

장영서(순천향대) 감독이 이끄는 국가대표 선수단은 11월 중순 소집돼 훈련을 이어왔다. 16개국이 참가하는 이 대회에서 한국은 인도, 캐나다, 스페인과 한 조에 편성됐다.

21세 이하 선수들이 출전하는 이 대회

의 한국 역대 최고 성적은 1989년 4위다. 여자하키 국가대표 선수단한편 여자 성인 대표팀도 같은 날 일본 전지훈련을 떠났다.

한진서(명택시청) 감독이 지휘하는 여자 대표팀은 13일까지 일본 나고야에서 훈련하며 일본 대표팀 등과 연습 경기를 치를 예정이다.

여자 대표팀은 2024년 1월 파리올림픽 최종 예선 대회를 준비 중이다.

/ 강동호 기자

## 프로야구 LG, 팬과 함께한 자선행사 입장수입 6천800만원 기부

프로야구 LG 트윈스가 연례 자선 행사인 러브 기빙 페스티벌(LOVE Giving Festival)에서 조성된 입장 수입 6천800만원을 서울 송파구 소재 신아재활원과 임마누엘집에 전액 기부했다고 3일 전했다.

LG 구단은 전날 오후 2시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평화의 전당에서 정규리그·통합우승을 팬들과 더불어 자축하는 '2023 러브 기빙 페스티벌 위드 챔피언십' 행사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해마다 연말에 LG 구단 선수들과 팬들이 함께하는 자선 이벤트다.

LG 구단은 먼저 이번 행사 입장 수입 6천800만원을 기부하고, LG 트윈스 동호회 연합에서 전달한 180만원과 네이버TV 행사 중계 후원금 650만원은 서울 소방재난본부로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올해 LG 시즌 성적과 연계해 진행한 보림출판사 '사랑의 도서관'을, 달려라병원 '기부 앤 런', 웰빙병원 기



염경엽 감독 등 LG 선수단 팬 사인회

부금과 마무리 투수 고우석, 선발 투수 켈리, 구원 투수 정우영, 외야수 이재원의 시즌 기록과 연동된 기부금 약 6천300만 원은 세이브더칠드런, 서울소방재난본부, 한국 생명중흥희망재단에 기탁했다고 덧붙였다.

선수 유니폼 경매 수익금 1천400만원도 세이브더칠드런에 기부했다. 한국시리즈 최우수선수 오지환 등

선수 19명과 염경엽 LG 감독 등이 행사에 참가해 사인회, 토크 콘서트, 포토 타임 순으로 팬들과 소통했다. 오지환은 구단을 통해 "이번 시즌 좋은 성적을 거두고, 이렇게 팬들과 뜻깊은 자리를 할 수 있어서 기분이 좋다"며 "내년에도 좋은 성적으로 연말에 기분 좋게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 이철민 기자

## 피겨 차준환·신지아, 회장배 랭킹대회 쇼트 남녀부 1위



차준환

차준환 86.28점...신지아 69.88점

한국 피겨 남자 싱글 간판 차준환(고려대)이 2023 KB금융 전국남녀 피겨스케이팅 회장배 랭킹대회 쇼트프로그램에서 선두에 나섰다.

차준환은 2일 경기도 의정부 실내빙상장에서 열린 대회 남자 싱글 쇼트프로그램

에서 기술점수(TES) 45.11점에 예술점수(PCS) 42.17점, 감점 1을 합쳐 86.28점으로 1위에 올랐다.

이번 시즌 ISU 주니어 그랑프리 3차 대회 우승자인 서민규(경신중)가 82.81점으로 2위를 차지했고, ISU 주니어 그랑프리 시리즈에서 금메달 1개(6차 대회)와 은메달 1개(4차 대회)를 따내 그랑프리 파이

널 출전권을 확보한 임주현(수리고·79.41점)이 3위에 랭크됐다.

이번 대회는 국가대표 1차 선발전과 내년 1월 중국 상하이에서 열리는 2024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사대륙 선수권대회 파견선수 선발전을 겸한다.

오른쪽 발목 부상으로 ISU 시니어 그랑프리 5차 대회 출전을 포기한 차준환은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번 대회 출전을 강행했다.

10명의 출전선수 가운데 마지막 연기자로 나선 차준환은 첫 번째 점프 과제인 쿼드러플 살코(기본점 9.70점) 착지에서 엉덩방아를 찢으면서 감점 1에 수행점수(GOE)도 4.85점이나 깎였다.

숨을 고른 차준환은 이어진 트리플 러츠-트리플 투프 콤비네이션 점프(기본점 10.80점)를 깔끔하게 착지하며 GOE 1.53점을 따낸 뒤 플라이잉 카멜 스핀을 레벨4로 처리하며 점수를 끌어올렸다.

차준환은 가산점 구간에서 쉐 트리플 악셀(기본점 8.80점)에서 GOE 1.76점을 확보한 뒤 체인지 풋 시스핀, 체인지 풋 콤비네이션 스핀, 스텝시퀀스를 모두 최고 난도인 레벨4로 소화하며 연기를 마무리했다. / 오성준 기자

**고객의 마음에 웃음을!**  
**SK가스가 드리겠습니다**

국내 LPG산업의 선두에 인주하지 않고 2세기의 끊임없는 도전에 맞서 전진하는 SK가스가 잊지 않고 실천하는 것은 '고객만족' - SK가스는 국내 최고의 청정에너지 회사. 동아시아 에너지 메이저로의 Vision을 갖고 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실천하겠습니다.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World Best를 추구하는 SK가스 -

**SK 가스**

TEL: (02)200-8114 FAX: (02)200-8118  
Homepage: <http://www.skgas.co.kr>

#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뉴진스”...MMA2023서 대상 2개 등 5관왕

## ‘올해의 앨범’ 아이브...‘올해의 레코드’ NCT 드림

걸그룹 뉴진스가 멜론이 주최하는 대중음악 시상식 'MMA2023'(멜론뮤직어워드)에서 대상 2개를 비롯해 5관왕에 올랐다. 뉴진스는 2일 오후 인천 영종도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열린 MMA2023에서 히트곡 '디토'(Ditto)를 앞세워 4개의 대상 가운데 2개인 '올해의 베스트송'과 '올해의 아티스트'를 들어 올렸다.



그룹 뉴진스가 2일 오후 인천 영종도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열린 대중음악 시상식 'MMA 2023'(멜론뮤직어워드) 레드카펫 행사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뉴진스의 '디토'는 올해 멜론 '톱 100' 차트 역대 최장기간 1위를 차지하는 등 국내외에서 큰 인기를 누렸다.

멤버 하나는 대상 수상 소감으로 "디토"를 처음 듣고 힐링 받은 기억이 있는데, 우리가 느낀 에너지를 많은 분께 전달해드릴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다.

혜인은 "힐트인 분야나 격정이 많은 분들이 디토라는 곡을 듣고 따뜻한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다"고 거듭했다.

민지는 "마음 따뜻한 연말을 보낼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뉴진스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뉴진스는 이 밖에도 본상에 해당하는 '톱 10', 발매 24시간 내 100만 스트리밍 이상을 달성해 '멜론의 전당'에 오른 앨범에 주는 '밀리언스 톱 10', '베스트 그룹 여자'까지 수상해 5개 부문을 휩쓸었다.

걸그룹 아이브는 정규 1집 '아이 해브 아이브'(I've IVE)로 '올해의 앨범'을 받아

2년 연속 이 시상식에서 대상을 받았다.

아이브의 안유진은 "지난해 저희가 대상을 받고서 그에 걸맞은 가수인가에 대해 계속 되뇌는 한 해를 보냈다"며 "이번에도 대상에 적합한 가수인가에 대해 질문하고 발전하는 한 해를 보내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장원영은 "저희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자기가 하는 일이 과연 맞는 것인지 고민이나 생각이 들 때가 있다"며 "저희가 하는 음악이 이들에게 힘이 되거나 답이 된 것 같고, 이 상으로 저희도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돼 감사하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성숙하게 말했다.

또 다른 대상인 '올해의 레코드'는 그룹 NCT 드림이 받았다.

NCT 드림의 마크는 "요즘 음악이 되게 많이 나오고, 쉽게 질릴 수도 있는 시대라고 생각하지만, 음악의 소중함을 지켜가며 앨범을 내보자는 마인드로 내년 앨범을 준비하고 있다"며 "시즈니(NCT 팬덤) 많이 기대해 달라"고 깜짝 컴백 계획을 밝혔다.

'올해의 신인'은 SM엔터테인먼트 소속 신인 그룹 라이즈와 엠넷 오디션 '보이즈 플래닛'으로 배출된 그룹 제로베이스원에 돌아갔다.

/ 정윤주 기자



드라마 '웰컴 투 삼달리' 방송 화면

## 신혜선·지창욱의 로코 '웰컴 투 삼달리' 시청률 5%대로 출발

지창욱과 신혜선 주연의 새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 '웰컴 투 삼달리'가 5%대 시청률로 막을 올렸다.

3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30분 JTBC가 방송한 '웰컴 투 삼달리'는 시청률 5.19%를 기록했다.

첫 방송은 어린 시절부터 제주에서 함께 자라고 한때 연인이었던 주인공 조용필(지창욱)과 조삼달(신혜선)의 일상이 주로 다루졌다.

용필은 제주 기상청에 근무하는 실력 있는 예보관이면서도 서울 본청으로 가려는 권유는 한사코 거부한다. 주변에선 용필이 서울에 있는 삼달과 마주치기 싫어 서울행을 마다한다는 소문이 돈다.

삼달은 '개전에서 난 용'이 되겠다는 어린 시절 다짐대로 서울의 유명한 사진작가가 됐는데, 남자친구가 삼달의 어시스트 방은주(조윤서)와 외도한 것을 알게 된다.

/ 김희정 기자

삼달에게 이 사실을 들킨 은주는 사실을 시도했다가 구조되고 '삼달에게 지속적인 감질과 언어폭력에 시달렸다고 허위로 진술한다.'

이 일이 논란이 되면서 삼달은 계획하던 전시회도 취소되고 업계에서 사실상 퇴출당한다.

이에 삼달이 언니, 여동생과 함께 제주를 향하고, 제주에 있는 어머니 아버지와 재회하면서 1회가 마무리됐다.

'웰컴 투 삼달리'는 개전에서 난 용 삼달이 모든 걸 잃고 추락한 뒤 고향인 제주 삼달리에서 오랜 친구이자 한때 연인이 용필과 재회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1회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빠르게 소개하면서도 용필과 삼달의 일상을 코믹하게 풀어냈다. 아울러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일은 일부만 공개해 이어지는 이야기에 호기심을 느끼도록 했다.

## ‘서울의 봄’ 파죽지세 흥행 개봉 12일째 400만 관객 돌파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는 영화 '서울의 봄'이 개봉 12일째에 400만 고지를 넘어섰다. 3일 '서울의 봄' 배급사 플러스엠 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이 영화의 누적 관객 수는 이날 자정 직후 400만명을 돌파했다.

지난달 22일 개봉한 이 영화는 개봉 4일째 100만명, 6일째 200만명, 10일째

300만명을 넘어서는 등 파죽지세로 관객을 끌어모으고 있다. 손익분기점인 460만명도 곧 넘어설 전망이다.

극장가에서는 '서울의 봄'이 입소문을 잘 탄다면 마동석 주연의 '범죄도시 3'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천만 영화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김성수 감독이 연출하고 황정민과 정우성이 주연한 이 영화는 1979년 12·12 군사반란의 긴박했던 9시간을 영화적 상상력으로 재구성한 작품으로, 탄탄한 이야기에 배우들의 뛰어난 연기가 어우러져 호평받고 있다.

/ 김철윤 기자

## 골든걸스 데뷔곡 '원 라스트 타임' 오늘 발표 인순이·박미경·신효범·이은미 걸그룹 도전

가요계 간판 베테랑 디바 인순이·박미경·신효범·이은미 4명이 뭉친 '골든걸스'가 1일 데뷔곡 '원 라스트 타임'(One Last Time)을 발표하고 걸그룹 도전에 나섰다. 골든걸스의 프로듀서로 나선 가수 박진영이 '원 라스트 타임'의 작사, 작곡, 편곡을 했다. 박진영은 지난달 23일 쇼케이스에서 "어디선가 주저하고 망설이고 계신 분, 두려움으로 움츠러 계신 분이 있다면 '원 라스트 타임'을 듣고 힘내시기를 바란다"고 노래의 취지를 소개한 바 있다.

박진영은 골든걸스 데뷔곡 무대에 대해 "지오디(god) 데뷔 무대를 보는 것 같았다"며 "제가 직접 아티스트에게 달라붙어 진행한 지가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는다. 회사(JYP 엔터테인먼트)에서는 가끔

(아티스트들) 만나 전체적인 방향이나 조언을 해주면서 지냈는데, (골든걸스와) 함께 호흡해 보니 지오디를 프로듀싱할 때 같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만약 1위를 하게 된다면 작곡가와 궁합이 잘 맞는다는 의미니 제가 또 곡을 써야겠다"고 덧붙였다.

골든걸스는 이날 KBS 2TV 음악 프로그램 '뮤직뱅크'에 출연해 '원 라스트 타임' 첫 무대를 대중에게 공개한다.

/ 황희진 기자



**더연합타임즈** [www.theuniontimes.co.kr](http://www.theuniontimes.co.kr)

회장·발행인 송원기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여의도동) 175  
 편집인 이수진 대표전화 1533-1545 / 팩스 : 0508-9192546  
 인쇄소 아이피디 E-mail unionilbo12@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연희 등록번호 서울,아53015 서울,가50142

구독 광고 문의 : 1533-1545 / 구독료 : 월 15,000원, 1부 800원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hristmas Market



## 2023 롯데백화점 크리스마스 마켓

11.24 - 12.25 | 잠실 롯데월드타워 아레나 광장 | 오전 10시 30분 - 오후 10시

연장 영업시간 안내 | 서울 및 수도권 전점 11월 매주 금 - 일 오후 8시 30분까지

